



한중인문학연구 제19집

ISSN : 1598-0383(Print)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최형용

To cite this article : 최형용 (2006)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중인문학 연구, 19, 339-361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최 형 용*

국문개요

한국어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대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어휘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어휘의 내부 구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어휘의 내부 구조에서 일어나는 대응은 크게 ‘접사와 어근의 대응’과 ‘접사와 접사의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접사가 어근과 대응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대응이 일차적으로 문법적 차원이 아니라 의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접사와 어근의 대응’은 다시 ‘고유어 접사와 한자 어근의 대응’과 ‘한자 접사와 고유어 어근의 대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는 접사가 한자일 때 보다 폭넓은 대응이 발견된다. 한편 접사와 접사가 대응하는 경우도 다시 ‘고유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고유어 접사와 한자 접사의 대응’, ‘한자 접사와 한자 접사의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동의성의 정도는 ‘접사와 어근이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가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 또 고유어 접사 가운데 한자가 기원인 ‘꾼’, ‘장이’, ‘지기’, ‘둥이’는 그 영역을 확대하기 이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대응하는 한자 단위 ‘軍’, ‘匠’, ‘直’, ‘童’과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접사의 대응으로 동의어가 되는 동의파생어의 존재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은 체계 아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접사, 어근, 한자 접사, 고유어 접사, 동의성, 동의파생어

* 아주대 인문학부

〈목차〉

1. 머리말
2.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
 - 2.1. 접사와 어근
 - 2.2. 접사의 범위
3.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
 - 3.1. 한자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의 대응 양상
 - 3.2. 한자 접미사와 고유어 접미사의 대응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을 흔히 ‘한자문화권’으로 언급하곤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문화의 여러 측면 가운데 특히 문자로서의 한자가 한국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데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음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자어를 한국어 문법 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나 한자어만을 위한 별도 체계를 세워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한 대립 관계에 있고 김규철(1997)에서는 이를 각각 ‘동일체계론’과 ‘별도체계론’으로 구별한 바 있다. 별도체계론에 입각하는 경우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응 양상이 배제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김광해(1989:4)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는 서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 또 심재기(2000:85~97)에서는 ‘담장(담牆)’, ‘본밀(本密)’, ‘굳건하다(굳建하다)’, ‘농익다(濃익다)’와 같이 고유어가 한자어와 어우러져 단어를 형성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고 김창섭(2001)은 한자어 형성에서 고유어 문법이 가

1) 김광해(1989)에서는 국어의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3대분하고 이들 어휘의 대응을 고유어끼리의 대응, 한자어끼리의 대응, 고유어 대 한자어의 대응, 고유어 대 외래어의 대응, 한자어 대 외래어의 대응으로 세분화되 고유어와 한자어가 일대다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는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므로 역시 별도체계론에 입각한 연구라 할 수는 없다.²⁾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둘 때 한자어를 다루든 고유어를 다루든 별도체계론에 입각한 논의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형태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자 접사가 고유어 접사와 가지는 대응 양상을 살펴려는 본고의 논의도 이러한 점에서 동일체계론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한자 접사가 반드시 고유어 접사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한자 접사가 고유어 접사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와 고유어 접사가 한자 접사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더 보편적이고 한자 접사가 고유어 접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 한자 접사가 형식의 변동을 통해 고유어 접사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에는 두 형식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한다. 결국 본고는 한국어 문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 동일체계론에 입각하여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

앞에서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에 대해 언급하였으니 먼저 ‘접사’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2.1. 접사와 어근

접사(affix)는 남기심·고영근(1993:191)에 따르면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형식형태소’로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곧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실질형

2) 더 자세히는 2자어는 별도 체계로, 3자어는 동일 체계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별도 체계로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은 일종의 예외 현상으로 포괄하지는 처리이다(김창섭 1999:15).

태소를 ‘어근(root)’으로 삼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그리고 이 때 ‘실질’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의미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의미의 허실(虛實)을 통해 이를 어근과 접사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남기심·고영근 1993:220).

- (1) 가. 인간(人間), 인류(人類), 인정(人情) …
- 나. 위인(偉人), 거인(巨人), 살인(殺人) …
- 다. 한국인(韓國人), 외국인(外國人), 예술인(藝術人) …

(1가)는 ‘인(人)’이 선행하는 단어들의 예이고 (1나)는 ‘인(人)’이 후행하는 단어들의 예이다. 이들에서의 ‘인(人)’은 모두 어근은 될 수 있어도 접사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1다)의 ‘인(人)’은 사정이 다르다. 이 때의 ‘인(人)’은 선행 형식 ‘한국, 외국, 예술’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220)에서도 이 때의 ‘인(人)’은 앞의 두 경우에서와는 달리 ‘어떤 표식을 가진 인물’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접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1가), (1나)의 ‘인(人)’과 (1다)의 ‘인(人)’은 본질적으로 다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1가), (1나)의 ‘인(人)’이 (1다)의 ‘인(人)’과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의적인 것이지 동음이의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가), (1나)의 ‘인(人)’이 ‘사람’이라는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1다)의 ‘인(人)’도 대체로 ‘사람’이라는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된다.

다음의 경우들을 더 살펴보기로 하자.

- (2) 가. 생가(生家), 생년(生年), 생일(生日)
- 가'. 생부모, 생아버지, 생어머니
- 나. 생기(生氣), 생물(生物), 생계(生計), 생업(生業)
- 다. 생사(生死), 생멸(生滅), 생활(生活)
- 라. 생과(生果), 생물(生栗), 생채(生菜), 생즙(生汁)
- 라'. 생감자, 생고구마, 생나물, 생도라지

노명희(2005:117~119)에서는 (2가)의 ‘생(生)’이 ‘태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2나)의 ‘생(生)’은 ‘살 생’의 의미, (2다)의 ‘생(生)’은 ‘살다’의 의미, (2라)의 ‘생(生)’은 ‘익지 아니한, 익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2가’)이나 (2라’)의 ‘생(生)’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생(生)’의 의미론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접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예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가’)이나 (2라’)의 ‘생(生)’은 전술한 (1다)의 ‘인(人)’과 평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노명희(2005)에서는 어근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노명희(2005)에서는 이익섭(1975/1993)의 어근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익섭(1975/1993)에서는 어근을, ‘깨끗-’, ‘소근-’과 같이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이긴 하되, 늘 의존형식이어야 하고 또 굴절 접사가 직접 결합될 수 없는 형태소로서 어느 경우나 굴절 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로 정의한다.³⁾ 노명희(2005:110)에서는 ‘의존성’, ‘어기 범주 변화’, ‘의미 변화’, ‘첫 음절 출현 불가’, ‘구에 결합 가능’, ‘조사 결합 제약’을 기준으로 삼아 ‘인(人)’을 접미사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어근으로 다루고 있다. 노명희(2005:110)에서 한자 접미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는 ‘적(的), 성(性), 화(化), 시(視), 연(然), 자(者), 가(家), 양(嬢), 씨(氏), 상(上), 별(別), 사(師), 수(手)’가 전부이다. 또 노명희(2005:89)에서는 ‘분리 불가능성’, ‘수식 범위 한정’, ‘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 ‘고유어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생(生)’을 접두사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접두사로 간주된 것에는 ‘생(生), 왕(王), 양(洋), 친(親), 외(外), 시(嫗), 초(超), 범(汎), 최(最), 준(準)’이 전부이다.

3) 이익섭(1975/1993:34~35)에서는 이러한 어근의 정의가 하나의 형식을 때에 따라 어근으로 혹은 어간으로 부르는 불명료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국어에서는 단어가 아닌 ‘眼鏡, 草木’의 ‘眼, 鏡, 草, 木’을 어근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 한자어의 기술에도 큰 편의를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남기심·고영근(1993:192)에서는 불규칙적 어근이 이익섭(1975/1993)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 두 견해는 단어와 문장의 층위를 구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어근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는 우선 최형용(2002)를 참고할 것.

이처럼 어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사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논의는 김창섭(1999)에서도 보인다. 김창섭(1999:24)에서는 가령 접두사적 요소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⁴⁾

(3) 가. 어떤 접두사적 요소가 구 구성을 수식한다면 관형사로 판정한다.

나. 관형사가 아닌 접두사적 요소는 접두사이거나 접두어근이다. 만일 그것이 고유어와 다수의 결합 예를 보인다면 접두사이고, 거의 한자어와만 결합한다면 접두어근이다.

(3가)는 따로 별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3나)는 그동안의 접사 설정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창섭(1999:25)에서는 ‘접두사’나 ‘접미사’는 ‘어근’에 비해 더 문법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어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어휘적일 뿐만 아니라 ‘무대책(無對策)’의 ‘무(無)’와 같이 한국어 문법에 왼쪽 표제를 인정함으로써 문법적 예외성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점을 들어 ‘폐광(廢鑛)’에서의 ‘폐(廢)’와 이에서 발달하여 단어와 결합하고 있는 ‘폐건전지(廢乾電池)’의 ‘폐(廢)’도 역시 어근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기존에 접두사나 접미사로 다루던 것들은 상당 부분 어근(그 이름이 ‘접두어근’이나 ‘접미어근’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김창섭(1999)에서 (3나)의 기준에 따라 한자 접두사로 간주한 것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의 것들이 전부이다.⁵⁾

(4) 건(乾) - 건포도, 건어물 ; 건울음, 건주정 ; 건강짜, 건강깡이

공(空) - 공건, 공돈 ; 공수표, 공염불 ; 공돌다, 공뜨다

4) 접미사에 대해서는 (3)과 같은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4)에서 ‘;’ 표시는 그 의미를 더 세분한 것을 나타낸다. 가령 ‘건(乾)’은 ‘마른, 말린’, ‘겉으로만, 건성으로’, ‘근거나 이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공연한’의 세 가지 의미로 더 세분화되어 있다. 한편 ‘잡(雜)’의 경우에는 ‘접두사(?)’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잡(雜)’의 접두사로서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전술한 (3나)의 기준으로 보면 ‘잡귀신’, ‘잡상인’의 ‘귀신’이나 ‘상인’이 고유어가 아닌 때문이다.

당(唐) - 당나귀, 당모시

생(生) - 생감자, 생고구마; 생가지, 생나무; 생가죽, 생맥주;
생트집, 생고생; 생지옥, 생급살; 생부모, 생어머니

숙(熟) - 숙회, 숙김치

시(嫗) - 시아버지, 시어머니

양(洋) - 양변기, 양약, 양배추

왕(王) - 왕개미, 왕개구리; 왕겨, 왕모래; 왕가뭇, 왕고집 : 왕고도, 왕이모

왜(倭) - 왜간장, 왜낫

외(外) - 외삼촌, 외할머니

잡(雜)(?) - 잡것, 잡귀신, 잡상인

친(親) - 친부모, 친아들; 친삼촌, 친손녀

호(胡) - 호떡, 호주머니

(4)의 접두사들은 모두 (3나)의 기준에 따라 ‘고유어와의 결합’을 보이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목록에는 우선 노명희(2005)에서 접두사로 간주한 ‘초(超), 범(汎), 최(最), 준(準)’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3나)의 ‘고유어와의 결합’이 자유롭게 못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명희(2005)에는 없는 ‘건(乾), 공(空), 당(唐), 왜(倭), 호(胡)’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고유어와의 결합’ 조건을 엄밀히 적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김창섭(1999)에서 이처럼 ‘고유어와의 결합’을 접사 구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조건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문제의 대상이, (1나)의 2자어 ‘살인(殺人)’과 같이 한자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고유어 문법에 따라 운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고유어와 자주 결합한다는 것은 한자 본래의 질서에서 이탈하여 한국어 고유어의 단어 형성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접사의 지위를 한정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의 문법과 고유어의 문법이 다르다고 해서 접사와 어근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창섭(1999)가 취하고 있는 어근에 대한 정의는 노명희(2005)와 같이 전술한 이익섭(1973/1993)의 것이다. 그렇다면 ‘폐광’은 모르겠지만, ‘접두어근’과 같이 정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⁶⁾ ‘폐건전지’의 ‘폐’까지 ‘단어의 중심부로서의 비자립형식’이라는 어근 정의

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4)에 제시된 접두사의 예들, 가령 ‘생고구마’의 ‘생(生)’이 ‘단어의 중심부’로 판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폐건전지’의 ‘폐(廢)’는 어근으로 간주하고 ‘생고구마’의 ‘생(生)’은 접두사로 간주하려면 ‘단어의 중심부로서의 비자립형식’이라는 이익섭(1973/1993)의 어근 정의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결국 어근과 접사가 특히 한자의 경우에 있어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정도성을 보이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 이러한 정도성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단일범주적 입장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정도성을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차이를 정밀화해 결과적으로 각각 다른 범주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다범주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정도성을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공통점에 착안해 결과적으로 같은 범주를 부여하되 그 안에서 차이를 포착해 내는 것이다.⁸⁾ 이 두 방법을 어근과 접사에 대응시켜 보자. 어떤 대상이 어근이면 어근이지 때로는 어근이기도 하고 때로는 접사이기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은 단일범주적 접근이고 어떤 대상이 때에 따라서는 어근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접사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은 다범주적 접근이다. 노명희(2005)에서 ‘활성어근’, ‘비활성어근’을 설정하고 김창섭(1999)에서 ‘접미어근’, ‘접두어근’을 도입한 것은 모두 정도성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대상이 어근도 되고 접사도 되는 경우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모두 단

6) 노명희(2005)에서는 정도성을 표시하기 위해 가령 ‘접<어>’ ‘접>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어근성이 더 큰 것’, ‘접사성이 더 큰 것’의 의미를 갖는다. 전술한 ‘인(人)’은 ‘접>어’와 같은 표시를 가지고 있다.

7) 물론 고유어도 이러한 정도성을 갖는다. 접미사화하거나 접두사화한 것들은 기원적으로는 어근의 자격을 가지던 것들이 적지 않으며 최근에 흔히 비통사적 합성어를 형성시킨다고 언급되는 ‘늦잠’의 ‘늦’도 접두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근과 접사 사이의 정도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유어는 (1)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요소가 어두에도 오고 어말에도 오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한자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8) 단일범주적 접근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오던 이분법적 사고를 나타내고 다범주적 입장은 최근의 인지언어학적 사고를 반영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형용(1997)의 4장을 참고할 것.

일범주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남기심·고영근(1993)은 가령 ‘인(人)’에 대해 어근과 접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미사의 ‘인(人)’은 어근의 ‘인(人)’과는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단일범주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들 논의와는 다르게 다범주적 입장이 언어 현상의 정도성을 보다 훌륭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정도성은 결국 언어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다범주적 입장이 이러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데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일범주적 입장에서는 어근이던 것이 접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어근이 접사로 변했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이기도 하고 접사이기도 한 시기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단일범주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최형용 2003:133).

- (5) 가. 狂生이 들즈빠 同里를 브터 오니<용가 97>
 나. 일로브터 天上에 나리도 이시리니<석상 9:19>
 다. 그들은 범인이 숨어 있을 만한 곳부터 수색하기로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 조사 ‘부터’는 ‘말미암다, 비롯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동사 ‘블-’으로부터 문법화한 것이다. (5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목적어를 가지는 ‘블-’은 현대 한국어 ‘부터’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5나)에 이르면 이는 현대 한국어 ‘부터’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즉 (5나)는 (5가)와 같이 ‘[일로블-]-어’로 분석될 수도 있고 (5다)와 같이 ‘[[일로]브터]’로 분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15세기에 ‘브터’에 동사와 조사 두 가지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대 한국어 접두사 ‘날’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날’은 중세 국어에서는 자립명사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었지만(이 다숫 가짓辛은 니겨 머그면 姪을 내오 느를 머그면 恚를 더으느니(是五種辛은 熟食하면 發姪하고

生噉(호면 增悲(호느니)<능엄 8:5>) 현대 한국어에서는 접두사로 문법화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명사와 접두사의 두 가지 자격을 가지던 시기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범주적 입장을 취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대상이 어근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접사도 될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즉 ‘폐광’의 ‘폐’는 어근으로, ‘폐건전지’의 ‘폐’는 접두사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생과(生果)’의 ‘생(生)’은 어근이고 ‘생감자’의 ‘생(生)’은 접두사가 되는 것과 평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범주적 입장이 어떤 범주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다범주적 입장이라고 해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혼동해도 좋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령 최형용(2003:24)에서는 접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한정한 바 있다.

(6) 가. 접미사는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

나. 접미사는 항상 외현적(overt)이고 부가적(additional)이다.

먼저 (6나)는 이른바 영접미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본고와는 별 상관이다. 본고에서 중요한 것은 (6가)이다. 이 (6가)는 가령 ‘뜻밖에’의 ‘에’를 접미사로 간주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¹⁰⁾ 그런데 다범주적 입장이라면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 ‘뜻밖에’의 ‘에’에 조사의 자격과 접미사의 자격을 주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뜻밖에’의 ‘에’를 접미사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다범주적 입장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접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어근이나 접사는 모두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9) 이와 같은 문법화는 인지언어학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인지언어학에서는 문법화를 인지과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환(2005)의 9장을 우선 참고할 것.

10) 그러나 이양혜(2000)에서는 이 때의 ‘에’를 접미사로 간주한다.

과 관련되는 단위이고 조사는 단어보다 큰 단위와 연관되는 것이므로 만약 ‘뜻밖’의 ‘에’를 조사와 접미사로 모두 인정한다면 이는 접미사의 정의에 대한 수정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 접사의 범위

이제 관심을 어근에서 접사로 돌려 보기로 하자. 전술한 노명희(2005)나 김창섭(1999)은 어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접사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떤 것을 어근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접사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앞에서 언급한 남기심·고영근(1993:191)의 접사 개념 즉 ‘복합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형식형태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가 대응하는 경우는 장을 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이외의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접사의 범위를 한정해 보기로 하자.

- (7) 물미역/생미역
빈주런/공주런, 빈치사/공치사
센자성/강자성
큰동맥/대동맥, 큰정맥/대정맥, 큰취타/대취타, 큰판/대판
- (8) 방전빛/방전광
방패춤/방패무
변광별/변광성
봉급날/봉급일
삼림띠/삼림대

(7)과 (8)은 모두 동의어 쌍을 보이지만¹¹⁾ 그 동의 관계는 단어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어의 일부를 통해 드러나며 그것은 한자와 고유어

11) 엄밀한 의미에서 ‘동의(同義)’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7), (8)을 포함하여 본고에서 대응 관계를 보이는 예들로 언급된 것들은 상당히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의(類義)’ 대신 ‘동의’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의 대응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단어 형성 과정과 관계되는 동의어의 존재는 언어 현상의 비경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Aronoff(1976)의 ‘저지(blocking)’ 현상이나 Kiparsky(1982)의 ‘동의어 회피 원칙(Avoid synonymy principle)’의 예외가 될 만한 것들이다.¹²⁾

(7)과 (8)의 단어들은 또한 대응을 보이는 부분이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7)의 단어들에서 각 쌍의 앞 단어들과 뒷 단어들에서 대응을 보이는 부분인¹³⁾ ‘물’과 ‘생(生)’, ‘빈’과 ‘공(空)’, ‘센’과 ‘강(强)’, ‘큰’과 ‘대(大)’는 ‘물’과 ‘생’을 제외하면 일종의 ‘훈(訓)’과 ‘음(音)’의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의미상으로는 대등한 것들이다. 그런데 고유어 대응소는 문장으로 치면 하나같이 자립성을 가지는 단어이지만 한자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들 한자 대응소들은 어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접두사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범주적 입장에 따라 이들 ‘생(生)’, ‘공(空)’, ‘강(强)’, ‘대(大)’는 모두 접두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단어 구조 전체에서 차지하는 종속적인 지위를 중시한 때문이다. 또 이들은 구와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관형사라고 할 수도 없다.¹⁴⁾ 따라서 (7)의 단어들은 대응소가 고유어는 단어, 한자는 접두사인 예들이 된다.

한편 (8)의 단어들은, (7)이 단어의 앞 부분에서 대응이 일어난 예라면 이번에는 단어의 뒤쪽에서 대응이 일어난 예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그 양상은 (7)과 평행하다. 고유어 대응소 ‘땃’, ‘춤’, ‘별’, ‘날’, ‘띠’는

12) 최형용(2004)에서는 파생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빈칸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 빈칸이 때로는 두 개 이상의 파생어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음을 들어 Aronoff(1976)의 ‘저지’ 현상이나 Kiparsky(1982)의 ‘동의어 회피 원칙’은 하나의 경향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파생에 의해 발생하는 동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이른바 어휘부가 잉여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3) 앞으로는 이들을 편의상 ‘대응소’라고 부르기로 한다.

14) 김창섭(1999:61)에서는 ‘대 할인 판매’와 같은 구성에서의 ‘대’는 관형사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7)에서의 ‘대’는 그 나머지 부분이 하나같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와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령 ‘대동맥 절단’은 ‘대[동맥 절단]’이 아니라 ‘[[대동맥][절단]]’으로밖에 분석되지 않는다.

문장으로 치면 모두 단어로서 그 자체로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 대응소 ‘광(光)’, ‘무(舞)’, ‘성(星)’, ‘일(日)’, ‘대(帶)’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지위는 (7)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근인지 아니면 접미사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역시 단어 구조 전체에서 차지하는 종속적인 지위를 감안해 접미사의 자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8)은 한자가 의존 형식이고 고유어가 자립 형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이것은 한자와 고유어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한 일반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한자가 자립 형식이고 고유어가 의존 형식인 경우도 없지는 않다.

(9) 장손녀/맏손녀, 장조카/맏조카, 장형/맏형

(9)의 ‘장(長)’은 ‘장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와 같은 예를 보면 1음절이지만 자립성이 인정되므로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당하는 ‘맏’은 자립성이 없고 단어 내부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접두사이므로 이 예들은 (7), (8)과는 달리 한자가 자립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어가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7), (8), (9)와는 달리 대응소가 모두 한자 접사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응소가 모두 고유어 접사인 경우도 있다. 먼저 대응소가 모두 한자 접사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0) 고소득/다소득

(11) 고발인/고발자, 고용인/고용자, 국외인/국외자, 귀화인/귀화자, 낙선인/낙선자, 당선인/당선자, 대변인/대변자, 대표인/대표자
권력가/권력자, 기술가/기술자, 기업가/기업자
경호원/경호인

15)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장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의 ‘長’과 ‘장손녀’의 ‘長’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큰 학교’의 ‘큰’과 ‘큰아버지’의 ‘큰’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

노무원/노무자
시장증/시장기
신뢰심/신뢰감

(10)은 대응소가 ‘고(高)’와 ‘다(多)’로 모두 한자 접두사인 경우이다. 대응소가 모두 한자 접미사인 (11)에 비하면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대응소가 모두 한자 접두사인 경우가 적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11)의 예들을 통해서는 먼저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人)’, ‘자(者)’, ‘가(家)’, ‘원(員)’의 다양한 대응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증(症)’과 ‘기(氣)’, ‘심(心)’과 ‘감(感)’도 모두 접미사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은 대응소가 모두 고유어 접사인 경우이다.

(12) 날바닥/맨바닥

군기침/헛기침

(13) 겁꾸러기/겁쟁이, 늦잠꾸러기/늦잠쟁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말썽꾸러기/말썽쟁이

게으름뱅이/게으름쟁이

피보/피쟁이

난봉꾼/난봉쟁이

날파람둥이/날파람쟁이

(12)는 대응소가 고유어 접두사인 경우이고 (13)은 대응소가 고유어 접미사인 경우이다.¹⁶⁾ 그러나 우선 이들 고유 대응소들은 그 기원이 한자였으나 지금은 고유어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헛기침’의 ‘헛’도 흔히 한자 ‘허(虛)’와 연관되는 것이라 언급되거니와¹⁷⁾ (13)의 ‘쟁이’는 한자 ‘장

16) 고유어 접미사끼리의 대응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거리’와 ‘대’이다. 이들은 접사끼리의 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예가 너무 많아 여기에서는 따로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최형용(2004)에서는 이 ‘거리’와 ‘대’의 대응이 Aronoff(1976)의 저지 현상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匠)과 연관되고 ‘꾼’은 한자 ‘군(軍)’과 그리고 ‘둥이’는 한자 ‘동(童)’과 기원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쟁이’, ‘꾼’, ‘둥이’를 모두 고유어 접사로 간주한 것은 이들이 기원이 된 한자의 어휘적 의미와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때문이다. ‘쟁이’는 ‘겹쟁이’에서 보듯이 ‘기술자’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꾼’은 아예 ‘군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둥이’도 ‘바람둥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이’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¹⁸⁾

(10)~(13)의 단어들은 (7), (8)의 단어들에 비하면 동의성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7), (8)의 대응소는 ‘훈’과 ‘음’의 관계만큼이나 가까워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10)~(13)의 단어들은 때에 따라서는 어감상의 차이를 보여 서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11)의 ‘인(人)’과 ‘자(者)’의 쌍들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고 (13)의 ‘꾸러기’와 ‘쟁이’ 쌍에서는 만약 대상이 어른이라면 ‘쟁이’가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7)~(13)의 단어들에서 어떤 대상이 접사인지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자립성을 가지는 단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문제가 되는 접사는 ‘복합어 형성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비자립 요소’이고 어근은 ‘복합어 형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자립 요소’가 된다.¹⁹⁾

17) 만약 ‘헛’의 ‘허’가 ‘허와 실’의 ‘허’라면 이 때의 ‘ㅅ’은 사이시옷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헛’이 ‘허’에 사이시옷이 결합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최형용(2003)에서 사이시옷 결합어의 접두사화를 언급하면서 ‘웃, 솟, 뿔’만 언급하고 ‘헛’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리고자 한다.

18)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어원 한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던 때가 있었고 그 때는 서로 대응소 관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19) 물론 어근은 비자립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어근은 ‘복합어 형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의 어근 개념은 이익섭(1973/1993)과는 다르고 남기심·고영근(1993)과는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

이제 (10)~(13)과 같이 동의어 쌍을 이루는 파생어를 ‘동의파생어’라 부르기
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동의파생어들의 대응소는 한자 접사와 한자 접사, 고
유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인 것들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한자 접
사가 고유어 접사와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 특히 이들에 관심
을 기울이려는 까닭은 그동안의 연구는 한자어와 고유어 즉 어휘 차원에 국한
되었고 접사 층위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인 바가 거의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어휘 차원에서 대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접사 층위에서도 대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응은 매우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결과시키고 있
다는 점에서, 비록 그 예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필요
로 한다. 이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들을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살펴보
기로 하자.

3.1. 한자 접두사와 고유어 접두사의 대응 양상

한자 접두사가 고유어 접두사와 대응하는 대표적인 예는 ‘생(生)’과 ‘날’이다.
이들 대응은 한자 접미사와 고유어 접미사의 대응을 포함하여 가장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4)가. 생감자/날감자, 생깃/날깃, 생고구마/날고구마, 생고기/날고기, 생된장/
날된장, 생밥/날밥, 생쌀/날쌀, 생전복/날전복, 생콩/날콩 : 생감/날감, 생
김치/날김치

나. 생고치/날고치, 생나무/날나무, 생송진/날송진, 생아편/날아편, 생장작/
날장작

다. 생도둑/날도둑, 생벼락/날벼락

(14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날’에 대응하는 ‘생(生)’은 ‘익지 아니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감자/날감자’ 등이 ‘불(火)’을 매개로 한 ‘익힘’인 데 반

해 ‘생감/날감’, ‘생김치/날김치’ 등은 ‘숙성’의 의미를 가지는 ‘익힘’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후자의 ‘익힘’은 전자의 ‘익힘’에 비해 보다 추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나)의 ‘생(生)’과 ‘날’은 이러한 의미가 더 추상화하여 ‘가공하지 않은, 말리지 않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14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음식과는 상관이 없어져 ‘생도둑/날도둑’에서는 ‘생(生)’과 ‘날’이 ‘몹시 악독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생벼락/날벼락’에서는 ‘생(生)’과 ‘날’이 ‘예기치 아니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접두사의 의미가 추상화하는 양상이 아니라 접두사 ‘생(生)’과 ‘날’이 그 추상화의 정도를 따라 대등한 자격을 가지며 하나의 칸을 함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4)에서 보이는 ‘생(生)’ 결합 단어가 모두 ‘날’ 결합 단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생나물/*날나물, 생맥주/*날맥주, 생지옥/*날지옥) 그 역도 마찬가지로(생강도/날강도, *생건달/날건달) ‘생(生)’ 접두사가 여타 한자가 보여 주는 것처럼 고유어 접두사 ‘날’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의 신조어인 ‘생얼굴’은 대응할 것으로 예측되는 ‘날얼굴’의 존재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방송’에 대해 ‘날방송’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生)’과 ‘날’이 여전히 대응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15)가. 건구역(건구역질)/헛구역(헛구역질) : 공결음/헛결음

나. 대사리/한사리

cf. 큰사리

(15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 접두사 ‘건(乾)’과 ‘공(空)’이 결합한 단어가 운데는 고유어 접두사 ‘헛’과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7)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공결음’의 ‘공(空)’은 ‘빈’과 대응하여 ‘빈결음’과 같은 단어가 기대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헛결음’이라는 단어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구역’도 ‘건기침’에 ‘마른기침’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마른구역’과 같은 단어가 있음직도 하지만 그보다는 고유어 접두사 ‘헛’이 결합한 ‘헛구역’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15나)의 ‘대(大)’는 고유어 접두사 ‘한’과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참고에서 보인 것처럼 (7)의 ‘큰’과 ‘대’가 대응하는 양상이 이 예에도 적용되어 ‘큰사리’가 존재하므로 같은 지시 대상에 대해 세 단어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한자 접미사와 고유어 접미사의 대응 양상

한자 접미사가 고유어 접미사와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의 대응 양상이다.

(16) 밀렵자/밀렵꾼, 조력자/조력꾼

별목공(별목부)/별목꾼

사기사(사기한)/사기꾼

수단가/수단꾼, 엽색가/엽색꾼

야경원/야경꾼

잡역부/잡역꾼

징역수/징역꾼

한산인/한산꾼

(17) 도배공/도배장이, 마조공/마조장이, 토기공/토기장이, 함석공/함석장이

조각가/조각장이

시계사/시계장이

옥인/옥장이

점자/점쟁이

(18) 등대수/등대지기

(16)은 ‘사람’을 나타내는 다양한 ‘자(者)’, ‘공(工)’, ‘사(師)’, ‘가(家)’, ‘원(員)’, ‘부(夫)’, ‘수(手)’, ‘인(人)’ 등의 한자 접미사가 고유어 접미사 ‘꾼’과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7)은 ‘사람’을 의미하는 ‘공(工)’, ‘가(家)’, ‘사(師)’, ‘인(人)’, ‘자(者)’가 이번에는 고유어 접미사 ‘장이/쟁이’와 결합한 경우를 보인 것이다. (18)은 역시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수(手)’가 고유어 접미사 ‘지기’와 결합한 경우이다.

그런데 (18)의 ‘지기’도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16), (17)의 ‘꾼’ 및 ‘장이’ 그리고 전술한 ‘둥이’와 마찬가지로 그 기원은 한자로서 ‘직(直)’이 그 어원이다. 따라서 이들 접미사들은 원래 어원과 연관될 때 동의어 쌍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19) 장정군/장정꾼, 순라군/순라꾼

(20)가. 각직/각지기, 금직/금지기, 당직/당지기, 마직/마지기, 방직/방지기, 봉화직/봉화지기, 식당직/식당지기, 장직/장지기, 청직/청지기, 피대직/피대지기
나. 근원동/근원둥이, 쌍동/쌍둥이, 옥자동/옥자둥이, 초립동/초립둥이, 팔삭동/팔삭둥이

다. 모의장/모의장이, 사토장/사토장이, 소목장/소목장이, 염장/염장이, 옥장/옥장이, 옹기장/옹기장이, 조궁장/조궁장이, 토기장/토기장이, 풍물장/풍물장이

(19)의 ‘장정군(壯丁軍)’과 ‘장정꾼’은 ‘꾼’의 어원이 ‘군(軍)’임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순라군(巡邏軍)’과 ‘순라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²⁰⁾ 이 때의 ‘군(軍)’은 예나 지금이나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9)는 다범주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가 된다. 다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 접미사 ‘꾼’은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군(軍)’과의 관련성을 끊어가고 있다.

(20)은 한자에 ‘이’가 결합하여 다시 접미사를 형성한 경우이다.²¹⁾ 먼저 (20)가)는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직(直)’에 ‘이’가 결합하여 ‘지기’라는 접미사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꾼’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랑지기, 행복지기’와 같이 그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나)는 ‘아이’의 의미를 가지는 ‘동(童)’에 ‘이’가 결합하여 ‘둥이’라는 접미사를 형성시킨 경우이다. (20나)의 예들에서의 ‘둥이’는 모두 ‘아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0) 다만 ‘순라꾼’은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21) 그동안 이러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인 바가 없지 않은가 한다. 잠정적으로 이러한 ‘이’를 ‘접미사 형성 접미사’로 부르고자 한다.

‘꾼’, ‘지기’처럼 그 영역을 확대해 전술한 것처럼 ‘바람둥이’와 같은 예에서는 ‘아이’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20다)의 ‘장이’는 ‘장(匠)’에 다시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이들 예에서는 ‘기술자’나 ‘전문가’의 의미가 발견되지 만 표기로는 구별되는 ‘쟁이’는 ‘멋쟁이’와 같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영역 이 매우 확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맺음말

언어를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이 전제하는 것은 언어 현상이 매우 경제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예외로 간주되는 것들은 마치 언어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 그동안의 주된 언어학적 연구 방법이었다. 그러나 설령 어떤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외도 언어 현상인 이상 규칙성을 보이는 것들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어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진다. 단어는 한편으로는 매우 규칙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측면을 보여 주는 매우 신비로운 언어 단위이다. 인간의 언어에서 단어 개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정의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이러한 단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단어를 만드는 규칙의 측면에서 보면 동의어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절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의미를 표현해 내기 위해 여러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파생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어들이 매우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단순히 예외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자와 고유어의 대응은 단순한 언어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사 차원에서 서로 대응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신기하리만치 무관심했었다. 이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어휘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어휘의 내부 구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이 아무런 체계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와 같은 특정한 접미사가 결합되면 새로운 고유어 접미사가 형성된다는지 또 그 과정에서는 접미사가 형성되기 이전의 의미를 가지는 차원에서 한자 단위와 새로 형성된 고유어 접사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공존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대응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는 같은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지 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한자 접사가 한자와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고유어 접사가 고유어와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곧 한자어와 고유어의 관계가 서로 동일한 체계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상의 제시에 치우치고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본고가 가진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한국어에서 보이는 동의파생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해(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탑출판사.
-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희(2003), 「어근류 한자어의 문법적 특성」, 『어문연구』 31-2.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문금현(1989), 「현대국어 유의어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심재기(2000),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 이양혜(2000), 『국어의 파생접사화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이승녕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
- 이익섭(1975/1993),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형태』, 태학사.
- 채현식(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2.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2), 「어근과 어기에 대하여」, 『형태론』 4-2.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형용(2004), 「파생어 형성과 빈칸」, 『어학연구』 40-3.

2. 외서

-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 The MIT Press.
- Kiparsky, P.(1982), Word formation and the lexicon, F. Ingemann(eds.)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n Linguistics Conference, Lawrence
 : University of Kansas.

Abstract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Sino-Korean affixes and Korean affixes

Choi, Hyung-yong

There are not a few correspondence between Sino-Korean and Korean in modern Korean. But this correspondence is also found in the units smaller than words such as affixes and roots. Therefore we can divide this in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affixes and roots 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affixes and affixes. The former means semantic correspondence not syntactic correspondence. The latter can be subdivided in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Korean affixes and Sino-Korean roots and the correspondence between Sino-Korean affixes and Korean roots, which is more often. Meanwhile the correspondence between affixes and affixes can be subdivided into the correspondence between Korean affixes and Korean affixes, between Korean affixes and Sino-Korean affixes and between Sino-Korean affixes and Sino-Korean affixes. The degree of synonymy is higher in the correspondence between affixes and roots and between Sino-Korean affixes and Korean affixes. Korean affixes originated from Sino-Korean such as '꾼', '장이', '지기', '둥이' correspond with Sino-Korean affixes '軍', '匠', '直', '童' in the case that those Korean affixes have the same meaning with original Sino-Korean affixes. These synonymous derivatives show that Sino-Korean and Korean can be treated together under the identically structured system.

Keyword affixes, roots, Sino-Korean affixes, Korean affixes, synonymy, synonymous derivatives.